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금융사기일 뿐”

국감 이슈 잠식 차단
김태년 “檢, 전모 밝혀야”
이용빈 “野, 정쟁 중단을”
연루 인사들과도 선긋기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회의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장이 각각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야권의 강도 높은 공격에 대해 “정쟁을 중단하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등 모든 정국을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휘감고 있고, 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회의실에서 야당의 공세를 두고 “별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격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국민의 힘이 뚜렷한 별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금 검찰이 전문 수사

인력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을 보면 국정감사가 추미에 법무부 장관 자녀 이야기로 시작해 옵티머스 사건 이야기뿐이다. 너무 준비 안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은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 허무맹랑한 문건을 가지고 마치 권력형 비리인 양 몰아가고 여당 대권후보들이 연루된 것처럼 상처를 내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악의적인 정치 음해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봐도 판단이 되는 문제다”며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악의적인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당 법률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면서 언급된 일부 인사들과는 거리 두기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참여정부 때 부총리를 했지만, 중간에 인연이 끊어진 사람”이라며 “의혹 제기된 사람을 다 여권에 연결하는 억지 주장으로 당정이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조짐에 대해선 곤혹스러운 기류도 읽힌다. 리얼미터가 TBS의 리모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

뢰수준에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3% 하락한 31.3%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0.6%포인트) 상승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당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이 다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가 주로 이뤄지면서 당이 전면에서 방어에 나서다 보니 청와대보다는 민주당이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다”며 “일회일비할 필요 없다.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기정 “김봉현과 일면식도 없다”

“라임·옵티머스와 무관… ‘靑 라인탄다’ 문자, 사기 증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대정부 투쟁의 선봉처럼 되면서 자신의 사기꾼 느낌을 희석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이유와 관련해 이런 추정을 했다.

강 전 수석은 “이번 사건은 금융사기 사건인데 권력형 게이트로 변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질이 나쁜 사기꾼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나는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이강세 씨를 청와대에서 만나기 전”이라며 “결국 (제가 이 대표를 만나기도 전에) 김 전 회장이 저를 팔아 사기를 친 것 아니겠나. 이 문자는 로비의 증거가 아닌 사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또 “추징금을 줄여 보려고 돈이 나간 일을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檢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선거법 위반 기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수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 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구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민형배 “보훈처, 5·18 계엄군 순직자 처리키로”

‘전사자’로 처리된 5·18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보훈처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은 15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군 5·18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하며, 보훈처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바꾸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인이 안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동안 보훈처는 ‘전사

자’로 분류된 5·18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보훈처 답변이 나왔다. 민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다”면서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자’로 분류된 5·18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보훈처 답변이 나왔다. 민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다”면서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김원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3.9% 불과”

2020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

울의 경우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있지만 광주의 경우 5개 구에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우리는 출산율 0.918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이라며 “정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산림청 산림녹화사업, 기후변화에 역행”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5일 “산림청 산림녹화사업 수종별 조림현황을 분석한 결과 47년간 국가에서 심은 총 산림면적은 284만ha에 68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80년에는 소나무숲이 현재보다 15%가 감소하고, 2100년에는 남부는 아열대림으로, 중부는 난대림으로, 침엽수는 강원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환경부의 예측과 달리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침엽수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가장 많은 4만4000ha, 잣나무도 1만1000ha나 심었다. 특히 북한이나 북유럽 등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잣나무를 1998년부터 2019년까지 3만1,100ha나 심으며,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소금, 칩명굴 제거 효과…제초비 절감 가능”

소금을 활용해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칩명굴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인산) 국회의원은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금처리 칩명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칩명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칩명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당굴 1분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kg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 칩명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 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된다.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 칩명굴 제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콘도 회원권 급 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최저 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콘도명	사용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방 2개 (기명)	2,480	1,6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충주둔산,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 (21) 방1	1,980	980
		디럭스형 방 2개 (무기명)	3,110	1,880			스위트A (26) 방2	2,120	1,280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금호리조트		패밀리형 방 1개	1,890	85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스위트형 방 2개	2,700	1,55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증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